

3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풍81’ 당시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안복남은 이후 많은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 ② 이 관장이 ‘1981년 여름’에 죽은 뒤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채로 ‘다시 태어난 썸’이라 말한 것에서 ‘1981년 여름’에 이 관장이 자신의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됐음이 드러난다.
- ③ 이 관장이 안미선에게서 ‘이슬이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을 얻는 시점에, 안미선은 안복남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신을 소홀히 대했음을 생각하며 슬퍼함이 드러난다.
- ④ ‘이번’은 ‘나’가 안미선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복남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으로, ‘나’의 안복남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알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 ⑤ 이 관장은 ‘1981년’의 ‘광화문 거리’를 회상하며 ‘1981년’ 이후에 ‘광화문 거리’를 다시 찾아가지 않는 것은 ‘1981년’의 ‘광화문 거리’에서 느꼈던 아름다움을 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이해와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려가 필요하다. 소통의 부재는 관계 형성에 있어 해를 끼친다. 「달로 간 코미디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안미선이 아버지의 행적을 되짚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이해와 소통은 세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안복남이 극단에서 연기를 할 때, 계수나무에 부딪치고,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의도적으로 행했던 데에서 그가 코미디언으로서 가진 열정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안미선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복남임을 편지로 처음 알게 된 것은 ‘나’와 안미선이 연인이었을 시절에 ‘나’와 안미선 사이에 발생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 덕분에 이 관장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데에서 이 관장과 같은 사람에게 왼쪽이 무한대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나’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투철함을 알 수 있겠군.
- ④ 이 관장이 안미선에게 안복남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을 때 가족을 버리고 양옥집을 팔고 애인과 도망갔다고 대답하는 데에서, 안미선과 안복남 사이에 이해가 없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이 관장이 안복남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안미선에게 말했을 때 안미선은 슬픔에 빠져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데에서 이 관장은 안미선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었음을, 안미선이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별(人間離別) 만사중(萬事中)의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쉽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 그 뉘 알리  
 맺힌 설움 이렇저렇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님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린 양자(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相思) 한테 만나 잊지 말자 백년기약(百年既約)  
 죽지 말고 한테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盟誓)  
 천금 주옥(千金珠玉) 귀 밖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라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피**가 되어 높고 높도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화옹(化翁)조차 시샘하고 귀신(鬼神)조차 회짓난다  
 일조 낭군(一朝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니  
 오늘날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無情歲月) 절로 간다  
 소년 청춘(少年青春) 다 보내고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오동 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이내 상사(相思) 알으시면 님도 응당 느끼리라  
 독수공방(獨守空房) 홀로 앉아 반야 잔등(伴夜殘燈) 벗을 삼아  
 일촌간장(一寸肝腸) 석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라  
 교태(嬌態) 겨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멘다  
 지척(咫尺) 동방(洞房) 천리(千里)되어 바라보니 암암(暗暗)하도다  
**만첩 천희(萬妾千姬)**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라  
 산읍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重重) 흘러 근원 되니  
 천지 인간(天地人間)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초로(草露) 같은 이내 인생(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부러 굶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대 바라보니 이내 상사(相思) 허사(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死)난 예로부터 있건마는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노류장화(路柳墻花)\*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지는가  
 산계야목(山鷄夜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아마도 옛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A]

[B]

-작자 미상, 「상사별곡」-

- \*독수공방: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계야목: 산 꿩과 들오리라는 뜻으로,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서 제 마음대로만 하며 다잡을 수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노여 업다  
평생에 원하요대 한대 네자 하얏더니,  
늡거야 므슨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대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울 적의 비슨 머리 열키연 디 삼년(三年)이라.  
연지분(胭脂粉) 잇내마는 늘 위하야 고이 할고.  
마음의 매친 실음 텃텃(疊疊)이 짜혀 이셔,  
짓나니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인생(人生)은 유한(有限)한대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하는고야.  
**염낭(炎涼)**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C]

(중략)

하루도 열두 달, 한 달도 설흔 날.  
저근덧 생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맏혀 이셔 골슈(骨髓)의 끼쳐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하리.  
어와, 내 병이나 이 님의 타시로다.  
찰하리 식어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모 가지마다 간 대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날애로 님의 오새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라.

-정철, 「사미인곡」-

\*편작: 중국 전국 시대의 의사. 장상군(長桑君)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한다.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만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선대의 인물을 언급하여 그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화자가 가진 연정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같은 어미를 사용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33.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에서 ‘연지분’을 쓸 일이 없는 것과 ‘비슨 머리’가 형클어졌다는 데에서 화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 ② [B]에서 ‘산’과 ‘물’의 특성을 통하여 임과의 단절감이 드러나고, 단절감으로 인해 화자는 ‘초로’같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한탄하고 임과 떨어져 사는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③ [A]에서 ‘천금주옥’을 통하여 화자의 임에 대한 진심을, [B]에서 ‘산계야목’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임이 ‘노류장화’같은 여인에게 길들여질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에서 평생 임과 함께하겠다는 화자의 희망이 좌절되고 있고, ‘인생’과 ‘시름’의 서로 대조되는 특성을 통하여 화자가 임과 이별한 이후에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 ‘소식’의 특성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이 심화되고, 이러한 배경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며 한탄하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 중에는 연정에 대해서 다룬 고전 시가들이 있다. (가)는 남녀 사이의 순수한 연정을 다루고, 화자의 임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 드러나고, (나)는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事)의 관점에서 군신 관계를 연인에 빗대어, 군주에 대한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간의 완급을 다루는 소재를 활용하여 그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의 ‘피’는 ‘나’의 애정 성취의 난관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의 ‘이 마음 이 사랑’은 ‘나’의 만족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② (가)의 ‘눈물’은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의 ‘염낭’은 느린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③ (가)의 ‘만첩천회’는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의 ‘광한던’과 ‘하계’는 화자가 임과 함께하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원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④ (가)의 ‘옥빈홍안’은 ‘나’의 한탄이 드러나는 소재이고, (나)의 ‘범나비’는 임에 대한 ‘나’의 적극적 구애를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⑤ (가)의 ‘오동추야 밝은 달’은 느린 시간의 흐름을, ‘녹음방초’의 ‘해’는 빠른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의 ‘열’명의 ‘편작’은 ‘나’가 가진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데서 신하된 ‘나’가 임금인 임에 대해 가진 깊은 충의를 드러내는 소재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